

성인의 구강건강 특성이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와 사용 실태에 미치는 영향

이은주[†] · 이미옥¹

부산정보대학 치위생과, ¹진주보건대학 치위생과

Analysis on the Effect of the Dental Health Characteristics of Adult on the Status of Recogni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Dental Hygiene Devices

Eun-Ju Lee[†] and Mi-Oak Lee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usan College of Information Technology, Busan 616-737, Korea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Jinju, Gyeongnam 660-757,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was processed from March 22nd to April 9th of 2010, was to figure out recognition, well-formed instruc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 about dental hygiene devices based on the dental health characteristics of 350 adults who dwell in Busan and Gyeongnam regions. Also, this study recommended the adults to use dental hygiene devices and provided such devices to help individuals take care of their dental health at home. The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processed with a statistics SPSS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14.0. SPSS Inc. USA) program. First of all, in order to demon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population statistics and that of the descriptive data,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an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tions of the dental health, Chi-squared test through Crosstabs was operated. According to the study, recogni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dental hygiene devices were very low. Therefore, public announcement about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such devices should be reinforced nationwide and instructions on choosing the right device and using of the dental hygiene devices based on patients' conditions by dental hygienic human efforts gathered from dental health organ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Key words Adult, Dental health, Dental hygiene devices

서 론

현대에 들어와서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 이상의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전신건강 상태와 관계에서 구강건강의 유지를 강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구강건강(Dental health)이란 상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조직 및 장기의 상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¹⁾.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치아발거의 대표적 원인이 되는 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치면세균막의 관리가 중요하다. 구강위생관리의 목적은 구강병의 발생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²⁾. 구강 내 치면세균막을 조절하는 데는 칫솔질이 가장 효율적이나, 칫솔질만으로는 치간 부위의 치면세균막

을 완벽하게 관리를 할 수 없고, 사람에 따라서는 각 개인에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 관리는 물론 치간 청결이나 치은 마사지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³⁾.

한편 국내·외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와 구강건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강위생용품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조사 연구가 있었다. 김⁴⁾, 김 등⁵⁾은 구강환경관리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백⁶⁾은 한국인의 칫솔질 횟수가 증가하나 우식 경험도도 같이 증가하므로 포괄적인 예방대책과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 등⁷⁾, 장⁸⁾은 서울시민의 99.3%가 매일 칫솔질을 하고 있으나 치실 등의 구강위생용품 사용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이 효과적이고 그 필요성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할지라도 개인의 구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효율적인 개인

[†]Corresponding author
Tel: 051-330-7192
Fax: 051-330-7067
E-mail: misocun-ju@hanmail.net

구강위생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연령과 구강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환자의 상태, 그리고 칫솔질과 세치제 및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⁹⁾.

이에 본 연구자는 부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특성이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와 사용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인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자료 및 지역 주민들에게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교육목적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부산, 경남 지역의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편의표본추출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요원이 대상자에게 간단히 설명 후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308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8%이었으며, 이중 무응답이 많은 12부를 제외하고 296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으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구강건강자각증상 특성은 관심·관리 구강병, 구강건강 중요도, 구강건강 상태, 구강건강 문제, 구강건강 문제 원인,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 4문항과 사용하지 않는 이유 6문항으로 파악하였고, 구강위생용품에 대해 단순히 알고 있는 ‘인지도’,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용법 숙지’와 ‘현재 사용여부’를 15문항으로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14.0. SPSS Inc.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료의 기술적 특성을 제시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을 사용하고, 구강건강 변수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한 검정(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 43.6%, 남자 56.4%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층은 20대가 4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 23.6%, 40대 18.2%, 50대 9.8%, 60대 이상 6.1%의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하가 34.5%로 가장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129	43.6
	Female	167	56.4
Age(years)	20-29	125	42.2
	30-39	70	23.6
	40-49	54	18.2
	50-59	29	9.8
	Over 60	18	6.1
Final academic background	Under high-school graduate	102	34.5
	Be in college	42	14.2
	Junior-college graduate	75	25.3
	University graduate	72	24.3
	Over graduate school	5	1.7
Job	Student	36	12.2
	Housewife	40	13.5
	Office job	84	28.4
	Salesperson	24	8.1
	Self-employed business	45	15.2
Household income (10,000won/month)	Professional	67	22.6
	Under 100	74	25.0
	100-200	112	37.8
	200-300	77	26.0
	300-400	9	3.0
	400-500	11	3.7
Over 500	13	4.4	
Total		296	100.0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졸업 25.3%, 대학교졸업 24.3%, 대학재학 14.2%, 대학원이상 1.7%의 순이었다. 직업은 사무직/기술직 28.4%, 전문직 22.6%, 자영업 15.2%, 주부 13.5%, 학생 12.2%, 서비스/판매직 8.1% 순이었고,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37.8%로 가장 많았다 (Table 1).

2.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자각증상 특성

가장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구강병은 ‘치아우식증’이 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주병’이 34.1%로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이 다른 건강문제와 비교했을 때의 중요도는 ‘덜 중요하다’가 49.3%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 상태는 ‘보통이다’가 44.6%로 가장 많았고, 구강건강의 문제는 ‘충치’가 49.0%로 가장 높았고, 구강건강의 문제점의 원인은 ‘잘못된 칫솔질’이라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구강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다’ 51.0%로 가장 많았다 (Table 2).

Table 2. The characteristic of dental health subjective symptoms of the subjects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	
Attention · control stomatosis	Dental caries	150	50.7	
	Periodontal disease	101	34.1	
	Malocclusion	36	12.2	
	Oral cancer	9	3.0	
Importance of dental health	Not important	112	37.8	
	Less important	146	49.3	
	Medium	34	11.5	
	Important	4	1.4	
Dental health status	Extremely unhealthy	12	4.1	
	Unhealthy	61	20.6	
	Not so healthy	132	44.6	
	Healthy	86	29.1	
	Very healthy	5	1.7	
Dental health problems	Dental caries	145	49.0	
	Gingiva	97	32.8	
	Trauma	4	1.4	
	Malodor	16	5.4	
Cause of dental health problems	Genetic factor	Yes	125	42.2
		No	171	57.8
	Incorrect brushing	Yes	171	57.8
		No	125	42.2
	Intake insufficient amount of food	Yes	72	24.3
		No	224	75.7
	Missed treatment period	Yes	143	48.3
		No	153	51.7
	Systemic disease	Yes	16	5.4
		No	280	94.6
Attention of dental health	Do not care at all	24	8.1	
	Do not care much	103	34.8	
	Not so interested	151	51.0	
	Interested	17	5.7	
	Very interested	1	0.3	
Total		296	100.0	

3.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동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좋을 것 같아서'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에서 권장해서'가 32.5%, '광고, 홍보물을 보고'가 14.1%, '판매처(치과제외)에서 권장해서'가 7.5% 순이었다 (Table 3).

4.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몰라서'가 26.0%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가 24.7%, '가격이 비싸서'가 16.9%, '치

Table 3. The motivation to use of dental hygiene devices of the subjects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
Dentist recommended	96	32.5
Seller (except dental clinics) recommended	22	7.5
Through advertisement/public announcement	42	14.1
Individual's own judgement	136	45.9
Total	296	100.0

Table 4. Reason why the subjects does not use dental hygiene devices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
No recommendation from a dentist	35	11.8
Hard to find	34	11.5
Expensiveness	50	16.9
Inconvenience/difficulty of the usage	73	24.7
Think that it would not be effective	27	9.1
Have little knowledge regarding adequate dental hygiene devices	77	26.0
Total	296	100.0

과에서 권장하지 않아서'가 11.8%, '구입하기가 어려워서'가 11.5%,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9.1% 순이었다 (Table 4).

5.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

구강위생용품을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의 '인지도'는 '이썬시개'가 78%로 가장 높았으며, '전동칫솔'이 57.8%, '약강도 칫솔'이 50.7%, '치실'이 47.6%, '치간칫솔'과 '양치용액'이 47.0%, '혀클리너'가 41.4%, '위터픽'이 36.2%, '교정용 칫솔'이 31.2%, '의치용 칫솔'이 26.6%, '의치세정제'가 25.4%, '지각과민둔화세치제'가 24.1%, '치주환자용 칫솔'이 23.3%, '침단칫솔'이 12.5%, '고무치간자극기'가 8.1% 순으로 높았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용법 숙지'는 '이썬시개'가 56.6%로 가장 높았으며, '치실'이 31.4%, '양치용액'이 28.7%, '약강도 칫솔'이 24.7%, '혀클리너'가 22.0%, '치간칫솔'이 20.6%, '전동칫솔'이 18.6%, '교정용 칫솔'이 17.9%, '치주환자용 칫솔'이 14.5%, '의치세정제'가 10.8%, '의치용 칫솔'이 10.5%, '지각과민둔화세치제'가 7.8%, '고무치간자극기'가 6.8%, '침단칫솔'이 4.7% 순으로 높았다.

구강위생용품의 '현재 사용여부'는 '이썬시개'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치실'이 22.3%, '약강도 칫솔'이 18.7%, '양치용액'이 17.9%, '치간칫솔'이 15.5%, '교정용 칫솔'이 9.1%, '전동칫솔'이 8.8%, '혀클리너'가 8.1%, '치주환자용 칫솔'이 7.1%, '의치세정제'가 3.7%, '의치용 칫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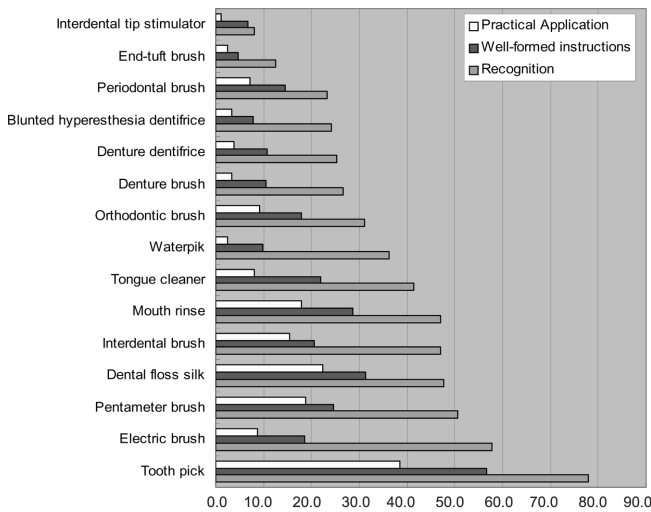


Fig. 1. The usage status of dental hygiene devices

과 ‘지각과민둔화세치제’가 3.4%, ‘위터픽’과 ‘침단칫솔’이 2.4%, ‘고무치간자극기’가 1.2% 순으로 높았다 (Fig. 1).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는 각 구강위생용품별로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용법 숙지’의 정도가 인지도보다는 낮았으나, ‘현재 사용여부’보다는 높았다. 연구대상자들은 구강위생용품을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의 비율은 높지만,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비율은 낮았다 (Fig. 2).

6. 관심·관리 구강병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

관심·관리 구강병에 따라 ‘치주환자용 칫솔’의 인지도 (P<.001)와 사용법 숙지(p=.029), ‘교정용 칫솔’의 인지도

(p=.018)와 사용법 숙지(p=.045) 및 현재 사용여부(p=.001), ‘침단칫솔’의 현재 사용여부(p=.002), ‘치간칫솔’의 인지도 (p=.003)와 사용법 숙지(p=.043) 및 현재 사용여부(p=.001), ‘고무치간자극기’의 인지도(P<.001), ‘의치세정제’의 인지도(p=.023)와 현재 사용여부(p=.025), ‘지각과민둔화세치제’의 인지도(p=.009), ‘의치용 칫솔’의 현재 사용여부 (p=.030)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관심·관리 구강병이 ‘치아우식증’인 연구대상자는 치간칫솔을 56.8% 인지하고 있었고, 41.0%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28.3%를 현재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관심·관리 구강병이 ‘치주병’인 연구대상자는 고무치간자극기(96.0%), 치주환자용 칫솔(57.9%), 의치세정제(48.0%), 지각과민둔화세치제(47.9%)를 인지하고 있었고, 의치용 칫솔(70.0%), 치간칫솔(43.5%), 침단칫솔(37.5%), 교정용 칫솔(37.0%)을 현재 사용하고 있었다 (Table 5).

7. 구강건강 중요도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

구강건강 중요도에 따라 ‘치주환자용 칫솔’의 사용법 숙지(p=.006), ‘전동칫솔’의 현재 사용여부(p=.004), ‘침단 칫솔’의 현재 사용여부(p=.037), ‘의치세정제’의 사용법 숙지(P<.001), ‘혀클리너’의 현재 사용여부(p=.026), ‘지각 과민둔화세치제’의 현재 사용여부(P<.001), ‘의치용 칫솔’의 사용법 숙지(p=.031)와 현재 사용여부(p=.001)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구강건강 중요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6.9%가 의치세정제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혀클리너(45.8%), 전동칫솔(34.6%)를 현재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강건강 중요도가 ‘보통이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는 의치용 칫솔(48.4%), 치주 환자용 칫솔(44.2%)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침단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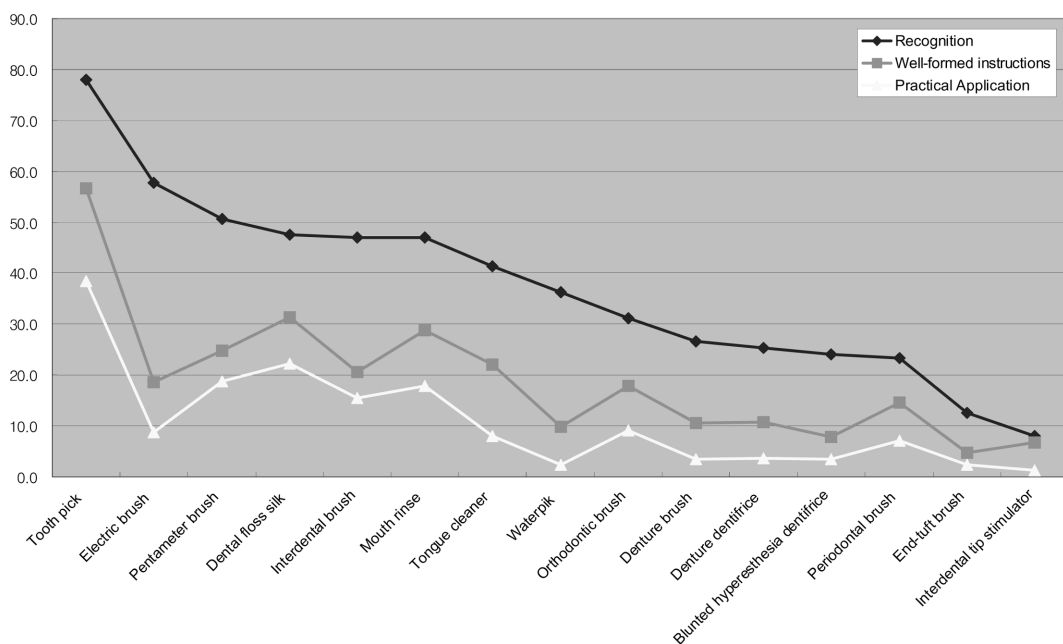


Fig. 2. The usage status of dental hygiene devices

Table 5. The usage status of dental hygiene devices on the attention control stomatitis

(Unit: N, %)

Dental hygiene devices		Attention control stomatitis					Total	χ^2	p [†]
		Dental caries	Periodontal disease	Malocclusion	Oral cancer				
Periodontal brush	Recognition	Yes	26(34.2)	44(57.9)	4(5.3)	2(2.6)	76(100)	26.465	P<.001
		No	124(56.4)	57(25.9)	32(14.5)	7(3.2)	220(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13(30.2)	22(51.2)	6(14.0)	2(4.7)	43(100)	8.992	0.029*
		No	137(54.2)	79(31.2)	30(11.9)	7(2.8)	253(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6(28.6)	12(57.1)	3(14.3)	0(0.0)	21(100)	6.461	0.091
		No	144(52.4)	89(32.4)	33(12.0)	9(3.3)	275(100)		
Orthodontic brush	Recognition	Yes	30(32.2)	29(31.2)	32(34.4)	2(2.2)	93(100)	10.059	0.018*
		No	131(62.1)	76(32.7)	4(1.8)	7(3.4)	203(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19(35.8)	22(41.5)	11(20.8)	1(1.9)	53(100)	8.035	0.045*
		No	131(53.9)	79(32.5)	25(10.3)	8(3.3)	243(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6(22.2)	10(37.0)	9(33.3)	2(7.4)	27(100)	17.633	0.001**
		No	144(53.5)	91(33.8)	27(10.0)	7(2.6)	269(100)		
End-tuft brush	Recognition	Yes	22(56.4)	11(28.2)	5(12.8)	1(2.6)	39(100)	0.802	0.849
		No	128(49.8)	90(35.0)	31(12.1)	8(3.1)	257(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6(37.5)	6(37.5)	3(18.8)	1(6.3)	16(100)	1.813	0.612
		No	144(51.4)	95(33.9)	33(11.8)	8(2.9)	280(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3(37.5)	3(37.5)	0(0.0)	2(25.0)	8(100)	14.349	0.002**
		No	147(51.0)	98(34.0)	36(12.5)	7(2.4)	288(100)		
Interdental brush	Recognition	Yes	79(56.8)	47(33.8)	7(5.0)	6(4.3)	139(100)	14.315	0.003**
		No	71(45.2)	54(34.4)	29(18.5)	3(1.9)	157(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25(41.0)	20(32.8)	12(19.7)	4(6.6)	61(100)	8.153	0.043*
		No	125(53.2)	81(34.5)	24(10.2)	5(2.1)	235(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13(28.3)	20(43.5)	12(26.1)	1(2.2)	46(100)	15.615	0.001**
		No	137(54.8)	81(32.4)	24(9.6)	8(3.2)	250(100)		
Interdental tip stimulator	Recognition	Yes	1(4.0)	24(96.0)	0(0.0)	0(0.0)	25(100)	46.532	P<.001
		No	149(55.0)	77(28.4)	36(13.3)	9(3.3)	271(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9(45.0)	7(35.0)	3(15.0)	1(5.0)	20(100)	0.554	0.907
		No	141(51.1)	94(34.1)	33(12.0)	8(2.9)	276(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1(25.0)	2(50.0)	1(25.0)	0(0.0)	4(100)	1.500	0.682
		No	149(51.0)	99(33.9)	35(12.0)	9(3.1)	292(100)		
Denture dentifrice	Recognition	Yes	29(38.7)	36(48.0)	7(9.3)	3(4.0)	75(100)	9.494	0.023*
		No	121(54.8)	65(29.4)	29(13.1)	6(2.7)	221(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14(43.8)	11(34.4)	5(15.6)	2(6.3)	32(100)	1.910	0.591
		No	136(51.5)	90(34.1)	31(11.7)	7(2.7)	264(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1(9.1)	7(63.6)	3(27.3)	0(0.0)	11(100)	9.307	0.025*
		No	149(52.3)	94(33.0)	33(11.6)	9(3.2)	285(100)		
Blunted hyperesthesia dentifrice	Recognition	Yes	28(39.4)	34(47.9)	5(7.0)	4(5.6)	71(100)	11.595	0.009**
		No	122(54.2)	67(29.8)	31(13.8)	5(2.2)	225(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8(34.8)	9(39.1)	5(21.7)	1(4.3)	23(100)	3.447	0.328
		No	142(52.0)	92(33.7)	31(11.4)	8(2.9)	273(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3(30.0)	6(60.6)	0(0.0)	1(10.0)	10(100)	5.812	0.121
		No	147(51.4)	95(33.2)	36(12.6)	8(2.8)	286(100)		
Denture brush	Recognition	Yes	38(48.1)	33(41.8)	5(6.3)	3(3.8)	79(100)	5.207	0.157
		No	112(51.6)	68(31.3)	31(14.3)	6(2.8)	217(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13(41.9)	12(38.7)	4(12.9)	2(6.5)	31(100)	2.076	0.557
		No	137(51.7)	89(33.6)	32(12.1)	7(2.6)	265(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1(10.0)	7(70.0)	1(10.0)	1(10.0)	10(100)	8.972	0.030*
		No	149(52.1)	94(32.9)	35(12.2)	8(2.8)	286(100)		
Total			150(50.7)	101(34.1)	36(12.2)	9(3.0)	296(100)		

†p-value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p<0.05, **p<0.01, ***p<0.001

Table 6. The usage status of dental hygiene devices on the importance of dental health

(Unit: N, %)

Dental hygiene devices		Importance of dental health				Total	χ^2	p [†]	
		Important	Medium	Less important	Not important				
Periodontal	Recognition	Yes	29(38.2)	37(48.7)	9(11.8)	1(1.3)	76(100)	0.023	0.999
		No	83(37.7)	109(49.5)	25(11.4)	3(1.4)	220(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15(34.9)	19(44.2)	6(14.0)	3(7.0)	43(100)	12.433	0.006**
		No	97(38.3)	127(50.2)	28(11.1)	1(0.4)	253(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9(42.9)	8(38.1)	4(19.0)	0(0.0)	21(100)	2.159	0.540
		No	103(37.5)	138(50.2)	30(10.9)	4(1.5)	275(100)		
Electric brush	Recognition	Yes	69(40.4)	82(48.0)	20(11.7)	0(0.0)	171(100)	6.318	0.097
		No	43(34.4)	64(51.2)	14(11.2)	4(3.2)	125(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22(40.0)	27(49.1)	5(9.1)	1(1.8)	55(100)	0.531	0.912
		No	90(37.3)	119(49.4)	29(12.0)	3(1.2)	241(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9(34.6)	9(34.6)	6(23.1)	2(7.7)	26(100)	13.143	0.004**
		No	103(38.1)	137(50.7)	28(10.4)	2(0.7)	270(100)		
End-tuft brush	Recognition	Yes	21(53.8)	12(30.8)	6(15.4)	0(0.0)	39(100)	7.379	0.061
		No	91(35.4)	134(52.1)	28(10.9)	4(1.6)	257(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7(43.8)	8(50.0)	0(0.0)	1(6.3)	16(100)	5.104	0.164
		No	105(37.5)	138(49.3)	34(12.1)	3(1.1)	280(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3(37.5)	4(50.0)	0(0.0)	1(12.5)	8(100)	8.508	0.037*
		No	109(37.8)	142(49.3)	34(11.8)	3(1.0)	288(100)		
Denture dentifrice	Recognition	Yes	23(30.7)	39(52.0)	12(16.0)	1(1.3)	75(100)	3.293	0.349
		No	89(40.3)	107(48.4)	22(10.0)	31.4(0)	221(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15(46.9)	13(40.6)	1(3.1)	3(9.4)	32(100)	20.602	P<.001
		No	97(36.7)	133(50.4)	33(12.5)	1(0.4)	264(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4(36.4)	4(36.4)	3(27.3)	0(0.0)	11(100)	3.029	0.387
		No	108(37.9)	142(49.8)	31(10.9)	4(1.4)	285(100)		
Tongue cleaner	Recognition	Yes	53(42.4)	59(47.2)	11(8.8)	2(1.6)	125(100)	2.847	0.416
		No	59(34.5)	87(50.9)	23(13.5)	2(1.2)	171(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29(44.6)	28(43.1)	7(10.8)	1(1.5)	65(100)	1.729	0.630
		No	83(35.9)	118(51.1)	27(11.7)	3(1.3)	231(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11(45.8)	6(25.0)	6(25.0)	1(4.2)	24(100)	9.258	0.026*
		No	101(37.1)	140(51.5)	28(10.3)	3(1.1)	272(100)		
Blunted hyperesthesia dentifrice	Recognition	Yes	22(31.0)	37(52.1)	10(14.1)	2(2.8)	71(100)	3.340	0.342
		No	90(40.0)	109(48.4)	24(10.7)	2(0.9)	225(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12(52.2)	9(39.1)	1(4.3)	1(4.3)	23(100)	4.643	0.200
		No	100(36.6)	137(50.2)	33(12.1)	3(1.1)	273(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2(20.0)	1(10.0)	6(60.0)	1(10.0)	10(100)	31.050	P<.001
		No	110(38.5)	145(50.7)	28(9.8)	3(1.0)	286(100)		
Denture brush	Recognition	Yes	26(32.9)	37(46.8)	14(17.7)	2(2.5)	79(100)	5.585	0.134
		No	86(39.6)	109(50.2)	20(9.2)	2(0.9)	217(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13(41.9)	15(48.4)	1(3.2)	2(6.5)	31(100)	8.882	0.031*
		No	99(37.4)	131(49.4)	33(12.5)	2(0.8)	265(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3(30.0)	2(20.0)	5(50.0)	0(0.0)	10(100)	15.477	0.001**
		No	109(38.1)	144(50.3)	29(10.1)	4(1.4)	286(100)		
Total			112(7.8)	146(49.3)	34(11.5)	4(1.4)	296(100)		

†p-value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p<0.05, **p<0.01, ***p<0.001

솔(50.0%), 전동칫솔(34.6%)을 현재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구강건강 중요도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는 지각과민둔화세치제(60.0%), 의치용 칫솔(50.0%)을 현재 사용하고 있었다 (Table 6).

8.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에 따라 ‘치주환자용 칫솔’의 사용법 숙지(p=.004), ‘위터픽’의 현재 사용여부(p=.039), ‘혀클리너’의 사용법 숙지(p=.018), ‘지각과민둔화세치제’의 사용법 숙지(p=.007), ‘의치용 칫솔’의 사용법 숙지(p=.001)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구강건강 상태가 ‘보통이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는 혀클리너(47.7%), 지각과민둔화세치제(43.5%), 치주환자용 칫솔

(37.2%)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위터픽(42.9%)을 현재 사용하고 있었다 (Table 7).

9. 구강건강 문제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

구강건강 문제에 따라 ‘치주환자용 칫솔’의 인지도(P<.001), ‘교정용 칫솔’의 사용법 숙지(p=.025)와 현재 사용여부(p=.001), ‘고무치간자극기’의 인지도(P<.001)와 현재 사용여부(p=.001), ‘의치세정제’의 인지도(p=.005)와 현재 사용여부(p=.035), ‘혀클리너’의 현재 사용여부(p=.032), ‘지각과민둔화세치제’의 인지도(p=.002)와 사용법 숙지(p=.032) 및 현재 사용여부(p=.014)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충치’가 구강건강 문제인 연구대상자는 39.1%가 지각과민둔화세치제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혀클리너

Table 7. The usage status of dental hygiene devices on the dental health status (Unit: N, %)

Dental hygiene devices		Dental health status					Total	x ²	p [†]	
		Extremely unhealthy	Unhealthy	Not so healthy	Healthy	Very healthy				
Periodontal brush	Recognition	Yes	2(2.6)	15(19.7)	34(44.7)	23(30.3)	2(2.6)	76(100)	1.138	0.888
		No	10(4.5)	46(20.9)	98(44.5)	63(28.6)	3(1.4)			
	Well-formed instructions	Yes	5(11.6)	13(30.2)	16(37.2)	7(16.3)	2(4.7)	43(100)	15.434	0.004**
		No	7(2.8)	48(19.0)	116(45.8)	79(31.2)	3(1.2)	253(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0(0.0)	4(19.0)	8(38.1)	8(38.1)	1(4.8)	21(100)	3.057	0.548
		No	12(4.4)	57(20.7)	124(45.1)	78(28.4)	42(1.5)	275(100)		
Waterpik	Recognition	Yes	4(3.8)	24(22.6)	42(39.6)	34(32.1)	2(1.9)	106(100)	1.836	0.766
		No	8(4.2)	37(19.5)	90(47.4)	52(27.4)	3(1.6)	190(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3(10.3)	9(31.0)	13(44.8)	3(10.3)	1(3.4)	29(100)	9.297	0.054
		No	9(3.4)	52(19.5)	119(44.6)	83(31.1)	4(1.5)	267(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1(14.3)	0(0.0)	3(42.9)	2(28.6)	1(14.3)	7(100)	10.069	0.039*
		No	11(3.8)	61(21.1)	129(44.6)	84(29.1)	4(1.4)	289(100)		
Tongue cleaner	Recognition	Yes	2(1.6)	30(24.0)	52(41.6)	38(30.4)	3(2.4)	125(100)	5.639	0.228
		No	10(5.8)	31(18.1)	80(46.8)	48(28.1)	2(1.2)	171(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4(6.2)	17(26.2)	31(47.7)	10(15.4)	3(4.6)	65(100)	11.907	0.018*
		No	8(3.5)	44(19.0)	101(43.7)	76(32.9)	2(0.9)	231(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1(4.2)	6(25.0)	11(45.8)	6(25.0)	0(0.0)	24(100)	0.843	0.933
		No	11(4.0)	55(20.2)	121(44.5)	80(29.4)	5(1.8)	272(100)		
Blunted hyperesthesia dentifrice	Recognition	Yes	2(2.8)	19(26.8)	2(36.6)	22(31.0)	2.8	71(100)	4.224	0.377
		No	10(4.4)	42(18.7)	106(47.1)	64(28.4)	3(1.3)	225(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4(17.4)	5(21.7)	10(43.5)	3(13.0)	1(4.3)	23(100)	14.208	0.007**
		No	8(2.9)	56(20.5)	122(44.7)	83(30.4)	4(1.5)	273(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2(20.0)	2(20.0)	4(40.0)	2(20.0)	0(0.0)	10(100)	7.009	0.135
		No	10(3.5)	59(20.6)	128(44.8)	84(29.4)	5(1.7)	286(100)		
Denture brush	Recognition	Yes	3(3.8)	19(24.1)	31(39.2)	26(32.9)	0(0.0)	79(100)	3.702	0.448
		No	9(4.1)	42(19.4)	101(46.5)	60(27.6)	5(2.3)	217(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5(16.1)	7(22.6)	16(51.6)	26(6.5)	1(3.2)	31(100)	19.474	0.001**
		No	7(2.6)	54(20.4)	116(43.8)	84(31.7)	4(1.5)	265(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0(0.0)	2(20.0)	3(30.0)	4(40.0)	1(10.0)	10(100)	5.574	0.233
		No	12(4.2)	59(20.6)	129(45.1)	82(28.7)	4(1.4)	286(100)		
Total			12(4.1)	61(20.6)	132(44.6)	86(29.1)	5(1.7)	296(100)		

†p-value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p<0.05, **p<0.01, ***p<0.001

Table 8. The usage status of dental hygiene devices on the dental health problems

(Unit: N, %)

Dental hygiene devices			Dental health problems					Total	χ^2	p [†]
			Dental caries	Gingiva	Trauma	Malodor	Esthetic			
Periodontal brush	Recognition	Yes	24(31.6)	48(63.2)	2(2.6)	1(1.3)	1(1.3)	76(100)	3.709	P<.001
		No	121(55.0)	49(22.3)	2(0.9)	15(6.8)	33(15.0)	220(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17(39.5)	17(39.5)	2(4.7)	2(4.7)	5(11.6)	43(100)	5.727	0.220
		No	128(50.6)	80(31.6)	2(0.8)	14(5.5)	29(11.5)	253(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8(38.1)	9(42.9)	0(0.0)	2(9.5)	2(9.5)	21(100)	2.340	0.674
		No	137(49.8)	88(32.0)	4(1.5)	14(5.1)	32(11.6)	275(100)		
Orthodontic brush	Recognition	Yes	52(55.9)	24(25.8)	2(2.2)	4(4.3)	11(11.8)	93(100)	4.296	0.367
		No	93(45.8)	73(36.0)	2(1.0)	12(5.9)	23(11.3)	203(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17(32.1)	25(47.2)	1(1.9)	1(1.9)	9(17.0)	53(100)	11.166	0.025*
		No	128(52.7)	72(29.6)	3(1.2)	15(6.2)	25(10.3)	243(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6(22.2)	7(25.9)	0(0.0)	5(18.5)	9(33.3)	27(100)	19.593	0.001**
		No	139(51.7)	883(2.7)	4(1.5)	11(4.1)	27(10.0)	269(100)		
Interdental tip stimulator	Recognition	Yes	1(4.0)	24(96.0)	0(0.0)	0(0.0)	0(0.0)	25(100)	49.576	P<.001
		No	144(53.1)	73(26.9)	4(1.5)	16(5.9)	34(12.5)	271(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9(45.0)	7(35.0)	1(5.0)	0(0.0)	3(15.0)	20(100)	3.605	0.462
		No	136(49.3)	90(32.6)	3(1.1)	16(5.8)	31(11.2)	276(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0(0.0)	2(50.0)	0(0.0)	2(50.0)	0(0.0)	4(100)	17.792	0.001**
		No	145(49.7)	95(32.5)	4(1.4)	14(4.8)	34(11.6)	292(100)		
Denture dentifrice	Recognition	Yes	25(33.3)	37(49.3)	0(0.0)	4(5.3)	9(12.0)	75(100)	14.815	0.005**
		No	120(54.3)	60(27.1)	4(1.8)	12(5.4)	25(11.3)	221(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12(37.5)	14(43.8)	1(3.1)	2(6.3)	3(9.4)	32(100)	3.308	0.508
		No	133(50.4)	83(31.4)	3(1.1)	14(5.3)	31(11.7)	264(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1(9.1)	5(45.5)	0(0.0)	2(18.2)	3(27.3)	11(100)	10.356	0.035*
		No	144(50.5)	92(32.3)	4(1.4)	14(4.9)	31(10.9)	285(100)		
Tongue cleaner	Recognition	Yes	61(48.8)	43(34.4)	3(2.4)	5(4.0)	13(10.4)	125(100)	2.951	0.566
		No	84(49.1)	54(31.6)	1(0.6)	11(6.4)	21(12.3)	171(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30(46.2)	20(30.8)	2(3.1)	4(6.2)	9(13.8)	65(100)	2.563	0.633
		No	115(49.8)	77(33.3)	2(0.9)	12(5.2)	25(10.8)	231(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11(45.8)	4(16.7)	0(0.0)	4(16.7)	5(20.8)	24(100)	10.587	0.032*
		No	134(49.3)	93(34.2)	4(1.5)	12(4.4)	29(10.7)	272(100)		
Blunted hyperesthesia dentifrice	Recognition	Yes	23(32.4)	37(52.1)	0(0.0)	3(4.2)	8(11.3)	71(100)	17.420	0.002**
		No	122(54.2)	60(26.7)	4(1.8)	13(5.8)	26(11.6)	225(100)		
	Well-formed instructions	Yes	9(39.1)	8(34.8)	2(8.7)	1(4.3)	3(13.0)	23(100)	10.583	0.032**
		No	136(49.8)	89(32.6)	2(0.7)	15(5.5)	31(11.4)	273(100)		
	Practical application	Yes	3(30.0)	3(30.0)	0(0.0)	3(30.0)	1(10.0)	10(100)	12.527	0.014**
		No	142(49.7)	94(32.9)	4(1.4)	13(4.5)	33(11.5)	286(100)		
Total			145(49.0)	97(32.8)	4(1.4)	16(5.4)	34(11.5)	296(100)		

†p-value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p<0.05, **p<0.01, ***p<0.001

(45.8%), 지각과민둔화세치제(30.0%)를 현재 사용하고 있었다. ‘잇몸’이 구강건강 문제인 연구대상자는 고무치간자극기(96.0%), 치주환자용 칫솔(63.2%), 지각과민둔화세치제(52.1%), 의치세정제(49.3%)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교정용 칫솔(47.2%)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고무치간자극기(50.0%), 의치세정제(45.5%), 지각과민둔화세치제(30.0%)를 현재 사용하고 있었다. ‘구취’가 구강건강 문제인 연구대상자는 고무치간자극기(50.0%), 지각과민둔

화세치제(30.0%)를 현재 사용하고 있었으며, ‘미적인면’이 구강건강 문제인 연구대상자는 33.3%가 교정용 칫솔을 현재 사용하고 있었다 (Table 8).

고 찰

구강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한다. 주요 구강위생용품으로는 칫솔, 지각과민둔화세

치제 및 기타 구강위생용품 등이 있다³⁾. 이렇게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 전문 인력과 상담하여 선택하고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입이 용이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구강보건인력의 적극적인 권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일반 성인의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를 보면 현재 사용 중인 구강위생용품은 이쑤시개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쑤시개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78.0%, 전동칫솔 57.8%, 약강도칫솔 50.7%, 치실 47.6%, 치간칫솔, 양치용액 47.0%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김과 정¹⁰⁾의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건강관리와 구강위생용품 인지와 사용실태에서 내원환자의 전체 구강위생용품 인지정도가 이쑤시개 96.3%, 치실 92.5%, 치간칫솔 82.6%, 전동칫솔 72.6%, 양치용액 70.1% 순과 연구대상의 차이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치실 현재 사용자율은 22.3%로 조사되었고 서¹¹⁾의 조사에서 치실의 사용자율 2.5%의 결과보다 치실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검토되었다. 치과에서 권장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구입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서¹¹⁾의 연구에서 일반 성인의 지각과민둔화세치제 사용자인 71.4%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각과민둔화세치제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는 15-30%라고 보고¹²⁾되어 있는 바, 국민에게 지각과민둔화세치제를 사용하도록 홍보되어야 한다.

치실의 현재 사용자율이 이쑤시개의 현재 사용자율보다 낮았으며, 치간칫솔의 사용자율은 15.5%였고 구강건강 문제인 미적인면의 치간칫솔 사용과의 유의도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교정용 칫솔을 사용하는 현재 응답자율은 9.1%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응답자율의 17.9%보다 낮게 조사되었으며, 구강건강 문제인 미적인면의 교정용 칫솔 사용과의 유의도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이는 교정용 칫솔의 사용방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강위생용품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보다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사용 권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건강 문제가 잇몸인 경우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를 보면, 현재 사용 중인 구강위생용품은 고무치간자극기가 5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주질환 환자들에게 권장되는 2-3줄모 약강도 칫솔의 현재 사용자율은 42.9%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취란 입에서 나오는 호기의 냄새 중에서 주위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이러한 구취는 심각한 사회생활장애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³⁾, Yaegaki 등¹³⁾과 Tonzetich¹⁴⁾ 그리고 양 등¹⁵⁾, 박¹⁶⁾은 여러 구강환경관리법의 구취감소효과를 측정 검토한 결과, 칫솔질뿐만 아니라

혓솔질로써 구취가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구취가 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치세정제의 인지도는 5.3%, 지각과민둔화세치제의 인지도는 4.2%, 혀클리너의 인지도는 4.0%에 불과하여 구취 환자에게 대한 의치세정제, 지각과민둔화세치제, 혀클리너의 인지도와 사용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김과 정¹⁰⁾은 자신의 구강건강 상태가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구강위생용품이 사용을 또한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의 현재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구강건강 상태가 '보통이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가 사용실태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치아기능상실의 대표적 원인이 되는 구강병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다. 이 둘 두 가지 구강병을 양대 구강병이라고 하며 한국 구강보건 분야에서는 양대 구강병을 정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노 등¹⁷⁾은 한국 사람이 치아를 맡겨하는 전체 원인 가운데서 75.2%가 치아우식증이었고, 21.2%가 치주질환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최 등¹⁸⁾은 일차 구강진료수령자에서 영구치아 맡겨원인 가운데 46.5%가 치아우식증이었고, 41.1%가 치주질환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의 최대 관심·관리 구강병으로 치아우식증이 50.7%, 치주병이 34.1%, 부정교합이 12.2%, 구강암이 3.0%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양대 구강병에 대하여 최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구강상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독자적인 판단으로 좋을 것 같아서'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에서 권장해서'가 32.5%, '광고, 홍보물을 보고'가 14.1%, '판매처(치과제외)에서 권장해서'가 7.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몰라서'가 26.0%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가 24.7%, '가격이 비싸서'가 16.9%, '치과에서 권장하지 않아서'가 11.8%, '구입하기가 어려워져서'가 11.5%,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9.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부산·경남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임의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일반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향후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확대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부산, 경남 지역 성인의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구강위생용품을 권장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정에서의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할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임

의로 선정한 부산, 경남 지역의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강건강 상태별로 구분하여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들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는 사용법 숙지와 현재 사용률 보다 높았으며, 사용법 숙지는 현재 사용률 보다 높았다. 특히, 이썬시개 사용자율이 다른 구강위생용품의 인지도, 사용법 숙지, 현재 사용자율 보다 높았다.
2. 관심·관리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구강암은 치간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었고, 치주병은 치주환자용 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치간칫솔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교합은 교정용 칫솔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치간칫솔을 가장 많이 사용법을 숙지하고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강건강 중요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6.9%가 의치세정제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45.8%가 혀클리너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강건강 중요도가 '보통이다'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8.4%가 의치용 칫솔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50.0%가 첨단칫솔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구강건강 상태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연구대상자의 47.7%가 혀클리너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고, 42.9%가 워터픽을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구강건강 문제가 충치인 연구대상자의 33.3%가 의치세정제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39.1%가 각각과민둔화세치제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고, 45.8%가 혀클리너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잇몸의 경우 96.0%가 고무치간자극기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고, 47.2%가 교정용 칫솔의 사용법을 가장 많이 숙지하고 있었으며, 50.0%가 고무치간자극기를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대상자들의 최대 관심·관리 구강병으로 치아우식증이 50.7%, 치주병이 34.1%, 부정교합이 12.2%, 구강암이 3.0%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최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구강상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7.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독자적인 판단으로 좋을 것 같아서'가 45.9%로 가

장 많았으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을 몰라서'가 26.0%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부산·경남 지역 성인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으나 사용법 숙지 및 현재 사용률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보건인력들이 환자특성에 따른 적합한 구강위생용품의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참고문헌

1. 김인숙 외: 구강보건교육학. 고문사, pp.9, 2002.
2. 김종배 외.: 공중구강보건학. 고문사, pp.13-68, 2000.
3. 김종배 외.: 임상예방치학. 고문사, pp.85-159, 2000.
4. 김수경: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2): 95-103, 2002.
5. 김진, 우희선, 정문화: S대학 치위생과 실습실에 내원한 환자의 치아우식상태와 구강위생관리능력 구강건강행위 실태. 한국치위생과학회지 9(1): 145-151, 2009.
6. 백대일: 한국인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7(1): 1-12, 1993.
7. 이재화, 이수정, 김진범: 대도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4): 509-529, 1996.
8. 장시덕: 구강보건관리에 따른 초등학생의 치아우식증 분석[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청원, 1997.
9. 이영혜,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 서울특별시 가정 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4(3): 239-257, 2000.
10. 김주영, 정기욱: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건강관리와 구강위생용품 인지와 사용실태. 한국치위생과학회지 15(2): 61-70, 2009.
11. 서은주: 한국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천안, 2001.
12. Horowitz HS et al.: Evaluation of a stannous fluoride dentifrice for use in dental public health programs. Basic findings J Am Dent Assoc 72(2): 408-422, 1966.
13. Yaegaki K, Suetaka T: Periodontal disease and precursors of oral malodorous component. J Dental Health 39(4): 733-747, 1989.
14. Tonzetich J: Reduction of malodor by oral cleaning procedure. Oral Surgery 42(3): 172-187, 1976.
15. 양수정, 문혁수, 김종배: 칫솔질 및 헹구기의 구취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7(2): 268-278, 1993.
16. 박홍련: D중공업 근로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조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6(2): 93-99, 2006.
17. 노인기외: 한국사람 치아 발거비중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2(2): 183-193, 1998.
18. 최원철 외: 수도권 일차구강진료수령자의 영구치아 발거원인 비중에 관한 조사연구. 치대논문집 22(1): 296-317, 1998.

(Received June 17, 2010; Revised August 16, 2010;
Accepted August 19, 2010)

